

중국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안후이(安徽)성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팀 이상훈 부연구위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팀 박진희 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 · 성별연구팀 최지원 연구원



중국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안후이(安徽)성

요약

- ▶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 총수입 중 내수용이 차지하는 비중(70.4%)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동부 연해지역에서 수출기업이 이전해오면서 가공무역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가공단계별로는 일차상품 중심의 수입구조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최종재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심의 수입구조이나, 광업의 비중(41.3%)이 높은 것이 두드러짐.
- ▶ [한국의 수출] 대안후이성 수출 중 내수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6.8%(2014년)로 대중 전체 내수용 수출 비중(33.4%)을 크게 상회함. 주로 중간재(55.1%)와 제조업(99.6%)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음.
 -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은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중간재 41.6%)와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최종재 43.9%)에 집중
 - 업종별로는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43.8%)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18.4%) △ 1차 금속 제조업(14.0%)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7.4%)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5.2%)이 수출 상위 5대 업종임.
- ▶ [수입시장 내 경쟁] 시장점유율과 시장비교우위지수(MCA) 분석을 통하여 경쟁우위 품목 또는 업종을 도출한 결과, 한국은 가공단계별로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에서 경쟁우위를 보였으며, 업종별로는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서 경쟁우위를 나타냄.
 -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산업용 원자재,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에서는 대만이 주요 경쟁국이었으며, 그 밖에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는 미국,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에서는 대만·미국·독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서는 일본·독일이 주요 경쟁국이었음.
- ▶ [시사점] 한국은 기업 진출 동향, 새로운 공급체인 형성, 생산자시장 확대 등 현지 수출시장의 동향과 구조적 변화를 잘 파악함으로써 수출 확대의 기회요인을 발굴하고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가 2010년 안후이성의 허페이(合肥), 우후(芜湖) 등의 지역을 '완장 도시벨트 산업이전 유치 시범구'로 지정한 이후, 이 지역에 수출가공단지를 설립하고 가공무역을 장려함에 따라 연해지역에 있던 BOE(중국 최대 LCD 패널 제조업체), 거리(格力, GREE: 가전제조업체) 등 연해지역에 있던 대형 수출기업의 진출이 증가
 - BOE 등 대형 수출기업이 새롭게 진출하면서 그동안 수입 비중이 크지 않았던 자본재,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서의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기업 진출, 공급체인, 생산자시장 등 현지 시장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임.
 - 아울러 한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의 확대 노력이 긴요하며, 현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수출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제품 첨단화·고급화를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임.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5-05

차 례

1. 서론
2.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
 - 가. 가공단계별 시장
 - 나. 업종별 시장
3. 한국의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시장 현황
 - 가. 한국의 대안후이성 수출 현황
 - 나.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출
 - 다. 업종별 내수용 수출
4. 주요국의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경쟁 현황: 시장점유율 및 시장우위지수 분석
 - 가. 주요국의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 나. 가공단계별 경쟁 현황
 - 다. 업종별 경쟁 현황
5.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1. 서론

■ 본고는 중국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 대한 분석 시리즈의 하나로, 안후이성의 내수용 수입시장을 분석

- 중국 내 경제환경의 변화와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내수용 일반무역¹⁾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고 지역별 교역특성이 상이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각 지역(省)별 내수용 수입시장 동향과 변화 추이를 세분하여 파악할 필요
- 중국 내 주요 지역(省)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가공단계별·업종별 수입 동향과 수입시장 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간의 경쟁 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대중국 수출의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
-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지역을 동부, 중부, 서부, 동북의 4대 권역으로 구분한 후 각 권역별로 한국의 내수용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省)을 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

안후이성 개황

- 안후이성은 창장삼각주 지역에서 중서부 내륙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한 지역으로, △ 농산물 가공 △ 철강 △ 자동차 △ 가전 △ 장비제조 △ 전자정보 산업이 발달
- 곡물, 밭작물 생산이 많은 곡창지대로 농산물 가공업이 발달하였으며, 풍부한 철광석·구리·석탄 매장량(전국 10위권 이내)을 바탕으로 철강산업도 발달
- 지게차, 굴삭기, 피스톤링 등을 생산하는 교통운송장비 및 건설기계 산업이 발달하고, 중국 내 완성차 판매량 9위 업체인 체리자동차(승용차 기준 46만 대, 2014년), 대형 상용차를 생산하는 장화이(江淮 JAC)자동차 본사가 소재
- 메이링(美菱), 룡스다(荣事达)를 중심으로 백색가전산업이 발달해 있고,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BOE²⁾가 2008년 이전해오면서 전자정보산업이 빠르게 발전

<안후이성의 위치>



자료: 위키피디아.

<주요경제지표>

항목	2010년	2012년	2014년	중국 내 순위
GRDP(억 위안)	1,236	1,7216	2,0845	14
GRDP성장률 (%)	14.6	12.1	9.2	11
고정자산투자(억 위안)	10,282	14,902	21,069	10
소비재 판매액(억 위안)	419.8	573.7	795.7	14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23.6	16.2	11.2	-
FDI(억 달러)	50.1	86.4	123.4	9
수출입 총액(억 달러)	234.2	330.0	433.6	15
수입	124.9	123.5	168.5	20
수출	109.3	206.5	265.1	15

주: 중국 수출입 통계는 지역별 해관통계와 CEIC 데이터 간 일부 차이가 있음. 2장부터는 해관통계 사용; 순위는 2014년 중국 내 31개 성(省)에서의 순위.

자료: CEIC, 『安徽省2014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각 년도 『安徽统计年鉴』.

1) 대부분 관세 감면·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가공무역과 달리 일반무역은 관세를 납부하고 거래되는 일반적인 무역방식임. 일반무역 형태로 수입된 상품의 경우 가공단계를 거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 내에서 소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본고에서는 '내수용 수입(또는 수출)'이라는 용어로 대체.



■ [대외무역] 안후이성의 교역규모는 2014년 434억 달러(전국 대비 1.0%)로 중국 내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2.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주요 수출대상국은 △ 미국 △ 일본 △ 베트남 △ 한국 등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 대만 △ 호주 △ 일본 △ 한국 등임.
- 안후이성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은 △ 자동 데이터 처리기계 △ 자동차(전동차와 기타 자동차) △ 냉장·냉동 기기 △ 액정디바이스·레이저기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 동광 △ 철광 △ 반도체 제조장비 △ 전자집적회로 등임.
- 한국과 안후이성 간 무역은 2009년 이후 비교적 빠른 증가세(연평균 26.2%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안후이성 전체 교역액대비 한국의 비중은 5.3%(2014년)로 3위를 차지함.³⁾
 - 한국은 안후이성의 5대 수출대상국이자 4대 수입대상국

그림 1. 전국대비 안후이성 수출입액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2. 한국의 대안후이성 교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총수입] 안후이성의 총수입은 2005~14년 연평균 16.8%씩 증가했으나 2010년 이후 증가율 저조

- 2005~09년 연평균 24.5% 증가했던 안후이성의 총수입은 2009~14년 증가율이 19.1%로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1.7% 증가에 그쳐 부진 심화
- 2014년 기준 중국의 총수입에서 안후이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불과하나,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전국 평균(14.4%)을 상회

■ [무역방식별 수입] 안후이성은 총수입에서 일반무역(내수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나, 최근 동부 연해지역에서 가전 및 전자 등 일부 산업이 이전해옴에 따라 가공무역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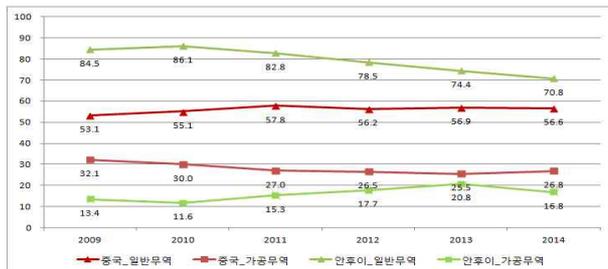
2) BOE는 1993년 베이징에 설립된 중국 최대 LCD 패널 업체로 베이징, 허페이(合肥), 충칭(重庆) 등지에서 모바일 및 TV용 LCD 패널을 생산하며, 2013년 전 세계 스마트폰 LCD 패널의 20%, 태블릿 LCD 패널의 31%를 점유함. 2008년 안후이성 허페이에 진출한 뒤, 2010년 6세대 LCD 생산라인을 구축했고, 공장을 점차 확충해 2014년에는 8세대 LCD 생산라인을 형성함. 현재 2018년 가동을 목표로 10.5세대 LCD 생산라인을 추가 건설 중에 있음. 2003년 한국의 현대전자 LCD 사업부(하이디스)를 인수해 급성장한 회사로, 위지트, DMS 등 한국의 여러 LCD 부품·장비 회사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BOE 홈페이지; 『ZDNET KOREA』(2015. 10. 15).

3) 2014년 안후이성의 국가별 교역비중은 △ 미국(13.6%) △ 일본(6.9%) △ 한국(5.3%) △ 대만(4.8%) 순이었음.

- 2014년 기준 중국의 총수입에서 내수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인 데 비해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의 비중은 70.8%로 매우 높은 편임.
- o 최근 5년간 내수용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안후이성(15.6%)과 중국(15.7%)이 비슷한 수준
- 2009~14년 안후이성 총수입에서 내수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나(84.4 → 70.8%), 가공무역 수입의 비중은 완만하게 증가(13.4 → 16.8%)(그림 3 참고)
- o 가공무역 수입 비중이 증가하는 안후이성의 변화 추세는 내수용 수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변화 추세와는 상반된 모습
-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15.6%)은 총수입의 증가율(19.1%)을 하회한 반면, 가공무역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27.0%)은 총수입의 증가율을 상회
- 2010년 중국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안후이성 허페이(合肥), 우후(芜湖) 등의 지역을 '완장(皖江)도시벨트 산업이전 유치 시범구'로 지정한 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가공단지 등이 설립되면서 가공무역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BOE, 거리(格力·GREE) 등의 연해지역 기업이 이전해옴.

그림 3. 안후이성의 일반무역 및 가공무역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각 년도 『安徽统计年鉴』, 중국해관통계, 安徽省统计局(<http://www.ahtjj.gov.cn/tjj>).

표 1. 안후이성의 무역방식별 수입액

(단위: 억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수입	67.5	118.6	142.5	125.7	173.8	177.8
일반무역	57.0	102.1	118	98.7	129.3	125.8
가공무역	9.1	13.8	21.7	22.2	36.1	29.9
기타	1.4	2.7	2.8	4.8	8.4	22.1

자료: 각 년도 『安徽统计年鉴』, 安徽省统计局(<http://www.ahtjj.gov.cn/tjj>).

2.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

가. 가공단계별 시장

- [총수입 구조] 안후이성 총수입은 가공단계로 구분할 때 일차상품 중심의 수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일차상품 비중은 2009년 51.2%에서 2014년 44.4%로 하락함. 반면 최종재는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확대
- 일차상품 중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특정 품목에 수입이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안후이성 총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1.6%에서 2014년 34.6%로 높아졌으며, 중간재 중에서는 반제품이 부품·부분품보다 수입 비중이 더 큰 구조를 보임.

- 최종재의 경우 자본재에 대한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재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3.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함.

- 최종재 중에서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수입이 자본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 [내수용 수입구조] 총수입과 마찬가지로 일차상품 중심의 구조이나, 수입 비중은 총수입보다 더 높은 수준임. 또한 총수입과 비교했을 때 중간재의 비중이 더 낮다는 것이 특징임.

- 안후성의 내수용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5.6%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국(15.7%) 및 총수입(19.1%)의 증가율을 하회

- 내수용 수입에서 일차상품의 비중은 49.6%(2014년)로 전체 내수용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차상품 중에서 특히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의 45.7%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높았음.

- 중간재까지 고려할 경우 산업용 원자재가 안후이성의 내수용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달하는데, 이는 안후이성의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

- 내수용 수입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과 2014년 동일한 수준(29.2%)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반제품에 대한 수입 비중이 다소 상승한 것과 달리 부품·부분품의 비중은 소폭 하락함.

- 2009~14년 수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품목은 최종재로 연평균 21.8% 늘었으며,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최종재의 수입 비중도 16.3%에서 21.2%로 확대

- 최종재 가운데 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이는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

-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수입 비중은 14.8%에서 19.6%로 확대, 단일 품목 중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함.

- 내수용 수입 중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임.

- 전국의 내수용 수입 중 소비재 비중이 9.6%인 것과 비교하면 안후이성의 소비재 수입 비중은 1/9 수준에 불과

■ [전국 대비] 중국 전체로는 일차상품과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나, 안후이성의 경우 일차상품 수입 비중이 절반 수준인 49.6%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임.

- 일차상품 중에서 미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비중은 중국 전체보다 30.1%p 높은 45.7% 수준임.

-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수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서, 전국의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수입액에서 안후이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

- 최근 5년간 내수용 수입 중에서 최종재의 수입 증가율이 전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재 중 특히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수입 증가율이 중국보다 10.2%p 높은 22.2%를 기록

- 각 품목별 중국 전체 내수용 수입에서 안후이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차상품(1.4%)이 가장 컸으며, 반면에 소비재의 경우 그 비중은 0.2%에 불과함.

- 안후이성의 내수용 수입은 전국 대비 1.1%의 비중을 차지하는 소규모임.

■ [품목별 내수용 수입] 내수용 수입에서 일차상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반면, 수입 증가율은 최종재가 가장 높았음.

- 일차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로 매우 높은 편이나 2011년 이후 하락세(2009년 54.5% → 2014년 49.6%)를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안후이성 전체 증가율(15.6%)을 하회함.

- 일차상품에서 구리광석·정광(精鑛)과 같은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수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 중간재 수입은 2009년과 비교했을 때 반제품의 비중이 소폭 상승한 반면, 부품·부분품의 비중은 소폭 하락함.
- 반제품은 구리, 화학목재펠프, 유리 등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수입에 집중되고 있으며, 부품·부분품의 경우 자본재 부품·부분품에 수입이 집중
- 자본재는 중국 전체대비 수입 비중과 연평균 수입 증가율이 뚜렷하게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1.7%를 기록하였으며, 수입 비중도 2009년의 15.2%에서 2014년 19.7%로 확대됨.
- 내수용 자본재 수입은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이 주도(그림 4 및 그림 5 참고)
- 내수용 자본재 수입에서 가장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인 자본재의 경우 HS 6단위 품목 기준으로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 액정디바이스·광학기기 △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기 등이 상위 수입 품목이며, 상위 10대 품목 중 상당수가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서 수입하는 품목임(표 3 참고).
- 최종재 중 소비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23.5%)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안후이성 전체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014년)로 미미한 수준임.
- 세부 품목별로는 팬(송풍기), 냉장고 등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와 내구 소비재의 수입이 비교적 크게 증가

표 2. 안후이성의 가공단계별 수입시장 비중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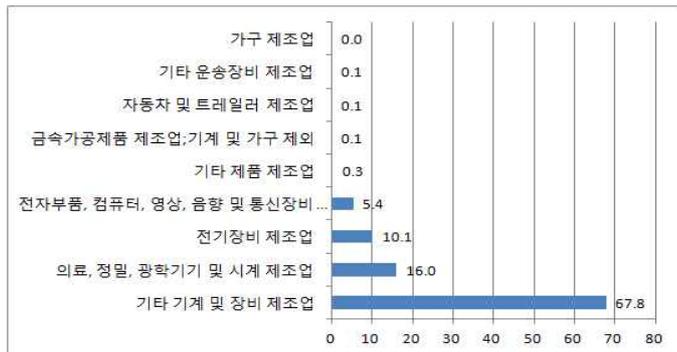
분류	안후이성 총수입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			중국 내수용 수입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일차상품	44.4	15.8	1.4	49.6	13.4	1.4	38.9	16.7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1.7	31.8	0.6	2.2	19.0	0.6	4.2	18.4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41.6	15.8	3.3	45.7	13.3	3.1	15.6	12.3
미가공 연료·윤활유	1.1	2.9	0.1	1.6	11.0	0.1	19.1	20.8
중간재	34.6	21.3	0.6	29.2	15.6	0.9	36.0	11.8
반제품	21.2	18.1	0.8	22.6	17.8	1.1	22.1	10.5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8	35.4	1.1	1.2	28.6	1.4	0.9	7.8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20.3	17.6	0.8	21.3	17.4	1.2	18.9	9.9
가공된 연료·윤활유	0.1	31.7	0.0	0.1	19.7	0.1	2.3	17.5
부품·부분품	13.4	27.8	0.5	6.6	9.6	0.5	13.8	14.0
자본재 부품·부분품	12.8	31.6	0.5	6.0	10.0	0.6	10.3	13.9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0.6	-2.6	0.2	0.6	6.2	0.2	3.5	14.4
최종재	21.0	23.9	0.8	21.2	21.8	1.1	20.4	16.8
자본재	19.7	24.0	1.2	19.7	21.7	1.9	10.8	10.5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9.7	24.5	1.3	19.6	22.2	2.0	10.3	12.0
산업용 운송장비	0.0	-29.1	0.0	0.0	-28.1	0.1	0.5	-7.0
소비재	1.3	23.6	0.2	1.5	23.5	0.2	9.6	27.7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3	15.9	0.5	0.4	19.6	0.5	0.8	28.6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5	24.7	0.4	0.7	23.3	0.6	1.4	27.4
승용차	0.0	-7.9	0.0	0.0	-23.7	0.0	5.1	31.9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	137.3	0.6	0.0	418.6	0.6	0.0	40.6
내구 소비재	0.1	98.6	0.2	0.1	114.2	0.2	0.4	20.8
반내구 소비재	0.1	14.6	0.1	0.1	15.8	0.1	0.9	23.2
비내구 소비재	0.2	24.8	0.2	0.3	26.4	0.3	1.0	18.0
미분류	0.0	360.7	0.1	0.0	103.8	0.0	4.7	99.6
전체	100.0	19.1	0.9	100.0	15.6	1.1	100.0	15.7
금액(억 달러)	168.5	-	-	118.6	-	-	11,095	-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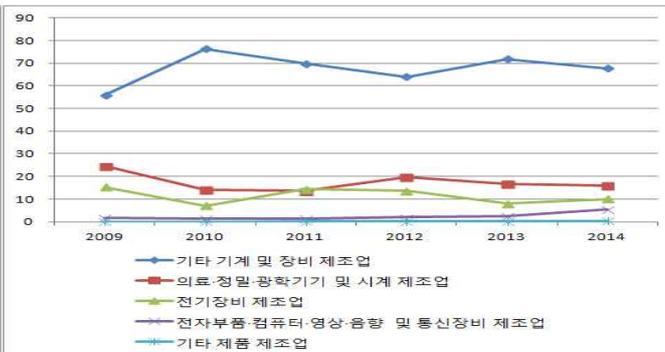


그림 4. 안후이성 내수용 자본재 수입의 업종별 비중(2014년)
(단위: %)



주: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기준.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내수용 자본재 수입의 업종별 비중 변화(2009~14년)
(단위: %)



주: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기준.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 안후이성 내수용 자본재 수입액 상위 10대 품목(2014년)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수입액 (억 위안)	자본재 내 비중 (%)	해당 업종
1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7.4	31.7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2	9013,80	액정 디바이스 및 광학기기	1.1	4.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3	8486,40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계	0.8	3.6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4	9031,80	광학 통신과 광섬유 성능 측정 기기	0.7	2.9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5	8479,89	기타 기계류	0.6	2.6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6	9031,49	CD 생산 위한 자동정밀검사 검출기	0.6	2.5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7	8457,10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	0.5	2.3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8	8414,3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0.5	2.2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9	8408,90	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	0.5	2.1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10	8486,20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0.4	1.6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주: HS 6단위 기준.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업종별 시장

- [총수입 구조] 제조업이 6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54.8%)에 비해 비중이 다소 확대됨. 또한 농림수산업의 수입 증가율(30.8%)이 안후이성 전체 수입 증가율(19.1%)을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미미함.
 - 광업의 수입 비중이 37.9%로 중국 전체와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26.7%p나 높았으며, 금속 광업에서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함.
 -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13.7%)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의 비중이 제조업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수입 증가율은 63.3%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 비중도 2009년의 2.8%에서 2014년 13.7%로 급증

- [내수용 수입구조] 제조업 비중이 56.4%(2014년)로 가장 컸으나 총수입에 비해 비중이 다소 낮아진 반면, 광업의 수입 비중은 총수입보다 높았음.
 - 세부 업종별로는 금속 광업이 41.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 제조업에서는 총수입과 달리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16.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 1차 금속 제조업(7.0%)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6.6%)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3.8%) △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3.5%)에서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함.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은 안후이성 총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13.7%)을 차지하였으나 내수용 수입에서는 그 비중이 3.3%로 크게 낮았는데, 이는 대부분 가공무역 형태로 수입되고 있기 때문
 - 제조업 중 가장 큰 수입 비중을 보인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서는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펌프·압축기,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에 대한 수입이 많았음(그림 6 및 그림 7 참고).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의 수입 증가율(19.6%)이 제조업 평균(18.1%)을 상회하면서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⁴⁾
 - 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 △ 섬유제품 제조업(57.7%)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37.1%)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19.6%) 등이 최근 5년간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임.
- [전국 대비] 중국 전체와 비교했을 때 안후이성의 업종별 수입시장 역시 제조업 중심의 수입구조를 보였으나, 수입 비중은 전국 평균(80.1%)을 크게 하회하였음.
 - 중국 평균보다 수입 비중이 크게 낮았던 제조업과 달리 광업의 비중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안후이성이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임.
 -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이 중국 전체에 비해 약 2.5배 정도 높은 16.1%의 수입 비중을 보였으며, 반대로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2.0%)의 비중은 전국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하였음.
 - 제조업의 수입 증가율(18.1%)은 전국 평균(14.9%)에 비해 높았으며, 수입 비중 2% 이상인 업종 중 △ 섬유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에서 안후이성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
 - 농림수산업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 수입 비중이나 증가율 모두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음. 안후이성은 중국 내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농산물 수입이 적기 때문임.

표 4. 안후이성의 수입시장 비중 및 증가율(업종별)

분 류	안후이성 총수입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			중국 내수용 수입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농림수산업	1.9	30.8	0.6	2.4	13.7	0.6	4.4	18.9
광업	37.9	15.6	4.5	41.3	12.7	3.9	11.2	12.3
금속 광업	37.8	15.6	4.7	41.1	12.7	4.1	10.6	12.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0.1	17.1	0.3	0.2	6.9	0.4	0.5	19.6

4) 2014년 안후이성의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서의 수입액은 19.1억 달러로, 2009년에 비해 2.4배 증가함.

표 4. 계속

분류	안후이성 총수입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			중국 내수용 수입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제조업	60.2	21.4	0.5	56.4	18.1	0.8	80.1	14.9	
식품 제조업	2.2	19.9	0.1	3.0	12.0	0.8	3.9	21.9	
음료 제조업	0.0	45.0	0.1	0.0	39.1	0.2	0.1	22.2	
담배 제조업	0.0	-	0.0	0.0	-	0.0	0.1	16.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2.3	29.3	1.6	2.1	57.7	2.4	0.9	23.6	
의복의복액세서라모피제품 제조업	0.0	34.0	0.0	0.0	44.4	0.0	0.4	27.9	
가족가방·신발 제조업	0.2	51.1	0.3	0.3	70.0	0.5	0.7	21.9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0.6	68.0	0.4	0.8	53.9	0.5	1.6	33.5	
펄프종아종이제품 제조업	2.5	17.5	1.9	3.5	5.9	2.6	1.4	8.4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2	47.9	1.7	0.1	19.2	0.8	0.1	15.8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5	3.6	0.1	2.0	10.0	0.1	22.2	20.7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1	13.6	0.7	6.6	16.9	0.7	9.7	10.6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1	119.9	0.1	0.2	122.0	0.2	0.9	16.2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	11.3	1.0	1.8	12.2	1.3	1.4	17.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7	67.5	0.6	1.7	85.0	3.6	0.5	20.8	
1차 금속 제조업	5.6	13.3	1.1	7.0	19.0	1.7	4.4	-0.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0.5	3.7	0.5	0.7	3.6	0.8	0.9	12.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13.7	63.3	0.5	3.3	37.1	0.4	9.6	14.9	
의료정밀광학기계가계 제조업	3.0	15.1	0.9	3.8	15.4	1.3	3.0	16.1	
전기장비 제조업	2.7	19.3	0.8	2.5	15.7	1.4	1.9	7.8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13.4	18.4	2.1	16.1	19.6	2.7	6.5	10.8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0.4	8.5	0.1	0.5	5.3	0.1	8.0	24.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4	-7.8	0.2	0.4	4.4	0.3	1.1	0.5	
가구 제조업	0.1	82.0	0.6	0.0	59.8	0.3	0.2	16.2	
기타 제품 제조업	0.1	27.4	0.2	0.1	35.2	0.2	0.6	15.1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	-	0.0	0.0	-	0.0	0.0	-0.4	
미분류	0.0	-	0.0	0.0	-	0.0	4.7	102.1	
전체	비중(또는 연평균 증가율)	100.0	19.1	0.9	100.0	15.6	1.1	100.0	15.7
	금액(억 달러)	168.5	-	-	118.6	-	-	11,095	-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그림 6. 내수용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내 세부 업종별 수입 비중(2014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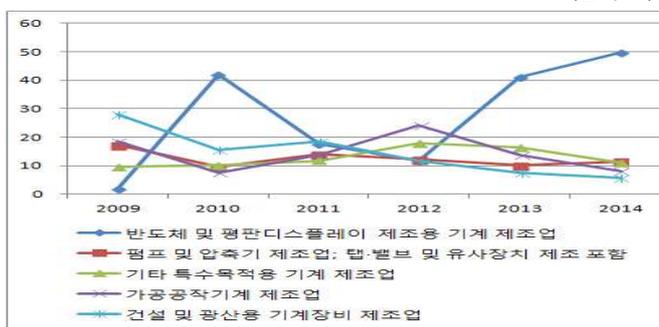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기준.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7. 내수용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내 세부 업종별 수입 비중 변화(2009~14년)

(단위: %)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기준; 내수용 수입 상위 5개 업종 기준.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한국의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시장 현황

가. 한국의 대안후이성 수출 현황

- [총수출] 안후이성에 대한 한국의 총수출은 2009~14년 연평균 25.7% 증가함. 이는 같은 기간 대중국 수출 증가율(13.3%)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며, 안후이성의 대세계 수입 증가율(19.1%)보다도 높은 실적임.

그림 8.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안후이성 비중 (단위: %)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 한국의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 규모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규모						연평균 증가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9~14년	
전체	4.4	9.2	8.0	7.8	12.4	13.7	25.7	
일반 무역	금액	2.8	6.5	4.2	4.7	7.9	9.2	26.6
	비중	64.3	70.2	52.5	60.7	63.6	66.8	-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무역방식별] 한국의 대안후이성 수출은 안후이성의 수입구조와 마찬가지로 내수용 수출 위주라는 특징을 보임(내수용 수출 비중은 2009년 64.3%에서 2014년 66.8%로 상승).

-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 비중은 2014년 기준 66.8%로, 한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 비중(33.4%)을 크게 상회함.
- 최근 5년간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13.0%)보다 크게 높은 26.6%를 기록하면서 내수용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대중국 내수용 수출에서 안후이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0.8%에서 2014년 1.5%로 소폭 상승함.
- 한국의 대중 총수출에서 안후이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0.7%인 것과 비교할 때 대중국 내수용 수출에서 안후이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나.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출

- [총수출 구조] 한국의 대안후이성 수출은 중간재 중심이나, 그 비중은 2009년(83.6%)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함. 반면에 최종재 중 자본재 수출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면서 자본재 수출 비중은 13.8%에서 35.2%로 대폭 확대

- 한국의 대안후이성 총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64.3%(2014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특히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와 자본재 부품·부분품 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높은 것이 특징임.
- o 대안후이성 총수출에서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4.4%에서 2014년 37.1%로 크게 하락한 반면, 자본재 부품·부분품 비중은 6.7%에서 26.4%로 크게 상승
- 최종재 수출의 비중은 35.2%이나 대부분 자본재 수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소비재에 대한 수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o 소비재의 경우 수입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수출 증가율도 안후이성 평균(25.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4% 수준에 그침.

■ [내수용 수출구조] 한국의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은 총수출과 마찬가지로 중간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떨어지고 있음(84.5→55.1%). 반면 최종재의 수출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임.

- 중간재 비중은 2009년 84.5%에서 2014년 55.1%로 크게 하락하면서 총수출에서의 비중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반제품 수출의 둔화에 기인함.
- o 중간재 중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수출 비중은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의 41.6%를 차지
- o 대안후이성 내수용 중간재 수출이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와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두 품목에 집중
- 대안후이성 중간재 수출 비중의 하락은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수출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함(2009년 75.0%에서 2014년 41.6%로 하락).
- o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수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 수출 증가율(10.8%)도 전체 수출 증가율(13.9%)보다 낮은 수준
- 최종재 수출은 자본재의 빠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그 비중이 2009년 11.9%에서 2014년 44.0%로 크게 증가함. 특히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64.8%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o 자본재 수출의 77.2%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과 13.7%를 차지하는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에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안후이성 자본재 수출을 주도(그림 9 및 그림 10 참고)
- o 대안후이성 자본재 수출의 주요 품목(HS 6단위 기준)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계 등이며, 상위 10대 품목 대부분이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 집중
- 내수용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안후이성에 대한 소비재 수출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함.

표 6. 한국의 대안후이성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및 증가율

분류	대안후이성 총수출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			대중국 내수용 수출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일차상품	0.6	-2.6	1.0	0.8	-5.1	1.1	1.1	3.9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	-	82.8	0.0	-	87.5	0.0	64.8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6	-3.3	1.0	0.8	-5.1	1.1	1.1	3.9
미가공 연료·윤활유	0.0	-	0.0	0.0	-	0.0	0.0	-

표 6.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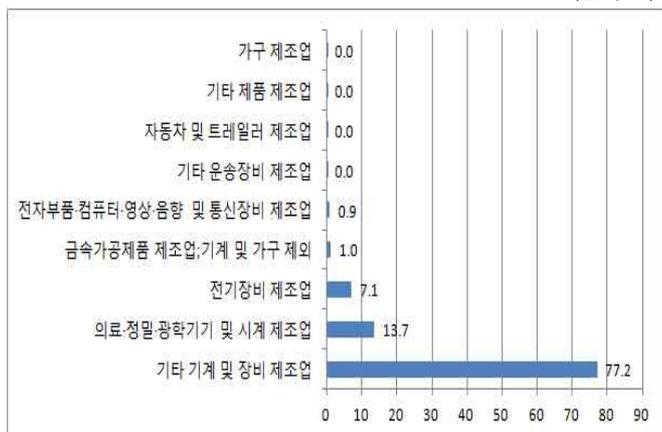
분류	대안후이성 총수출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			대중국 내수용 수출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중간재	64.3	19.2	0.6	55.1	16.3	1.0	78.6	12.6	
반제품	37.6	9.5	0.8	43.2	13.3	1.3	46.6	10.2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0	-	0.0	0.0	-	0.0	0.0	37.9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37.1	9.4	0.8	41.6	12.5	1.4	42.7	10.2	
가공된 연료·윤활유	0.5	33.7	0.1	1.7	100.7	0.6	3.8	9.8	
부품·부분품	26.7	56.8	0.4	11.9	33.2	0.6	32.0	16.8	
자본재 부품·부분품	26.4	65.4	0.5	11.6	35.1	0.7	25.1	16.8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0.3	-17.7	0.1	0.3	4.2	0.1	6.9	16.8	
최종재	35.2	50.4	1.2	44.0	64.5	3.1	20.2	16.0	
자본재	34.9	51.1	1.4	44.0	64.8	4.2	14.6	14.8	
자본재: 운송장비 제외	34.9	51.1	1.4	43.9	64.8	4.3	14.5	15.2	
산업용 운송장비	0.0	-	0.0	0.0	-	0.1	0.1	-8.0	
소비재	0.3	12.4	0.1	0.1	12.3	0.0	5.7	19.5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1	0.8	1.1	0.0	-	0.0	0.0	23.7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1	17.7	0.2	0.0	17.9	0.0	0.7	32.2	
승용차	0.0	-15.7	0.0	0.0	-	0.0	2.8	14.1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	-	0.0	0.0	-	0.0	0.0	17.4	
내구 소비재	0.0	18.0	0.0	0.0	16.1	0.0	0.7	41.1	
반내구 소비재	0.1	27.1	0.1	0.0	24.7	0.1	0.6	19.4	
비내구 소비재	0.0	27.3	0.1	0.0	-7.0	0.0	0.8	22.6	
미분류	0.0	-	0.0	0.0	-	0.0	0.1	-28.4	
전체	비중(또는 연평균 증가율)	100.0	25.7	0.7	100.0	26.6	1.5	100.0	12.6
	금액(억 달러)	13.7	-	-	9.2	-	-	625.1	-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그림 9. 대안후이성 내수용 자본재 수출의 업종별 비중(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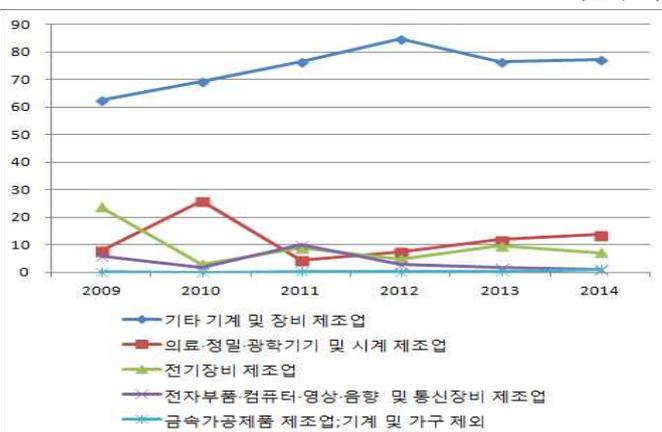
(단위: %)



주: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기준.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0. 대안후이성 내수용 자본재 수출의 업종별 비중 변화

(단위: %)



주: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기준.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7. 한국의 대안후이성 내수용 자본재 수출액상위 10대 품목(2014년)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수출액 (억 달러)	자본재 내 비중 (%)	해당 업종
1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1.7	41.7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2	8486.40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계	0.8	19.0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	9031.80	광학 통신과 광섬유 성능 측정기기	0.2	5.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4	9031.49	CD 생산용 자동정밀검사 검출기	0.2	4.9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	8543.70	기타 전기기기	0.2	4.7	전기장비 제조업
6	8432.30	파종기·이식기 등	0.2	4.0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7	8414.10	진공펌프	0.1	2.1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8	8479.89	기타 기계류	0.1	2.1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9	8486.20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0.1	1.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10	8412.21	리니어모터	0.1	1.6	전기장비 제조업

주: HS 6단위 기준.

자료: 중국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업종별 내수용 수출

■ [총수출 구조] 제조업 비중이 99.8%로 절대적이며, 특히 상위 3대 수출 업종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에 수출이 집중된 것이 특징임.

- 최대 수출업종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4.6%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이 빠르게 증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5%에서 2014년 30.9%로 급증함.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도 전 업종 평균(25.7%)보다 높은 47.5%를 기록하며 전체 대안후이성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10.2 → 22.7%).
- 대안후이성 3대 수출업종의 수출 집중도는 72.6%에 달함.

■ [내수용 수출구조] 내수용 수출 역시 제조업 비중이 99.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총수출(25.7%)보다 다소 높은 26.6%를 차지하고 있음. 수출 비중 상위 3대 업종에 대한 수출 집중도는 총수출과 비슷한 76.2%임.

-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56.4%인 데 비해 한국의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은 제조업에 99.6%가 집중된 것이 특징임.
-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 상위 3대 업종은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43.8%) △화학물질·제품 제조업(18.4%) △1차 금속 제조업(14.0%)으로, 특히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임.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의 내수용 수출 비중은 점차 증가(2009년 10.8% → 2014년 43.8%)하고 있는 반면, 기타 화학물질·제품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 내수용 수출 상위 5대 업종 중에서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수출 비중 2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안후이성 총수출에서의 비중보다 내수용 수출에서의 비중이 더 높아 내수용 수출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업종들임.

- 대안후이성 총수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30.9%)의 경우 내수용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하여 가공무역 수출에 고도로 집중
- 수출 비중이 2%를 초과하는 제조업 세부 업종 중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81.4%)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67.7%)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특히 높은 업종임.

표 8. 한국의 대안후이성 업종별 수출 비중 및 증가율

분류	대안후이성 총수출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			대중국 내수용 총수출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농림수산업	0.0	52.8	0.6	0.0	-6.8	0.1	0.1	29.1	
광업	0.2	17.7	1.3	0.4	24.0	2.0	0.3	14.4	
금속 광업	0.0	-	1.0	0.1	-	2.4	0.1	2.0	
비금속광물 광업	0.2	14.3	1.3	0.3	15.5	1.9	0.2	21.5	
제조업	99.8	25.7	0.6	99.6	26.7	1.5	99.5	12.8	
식료품 제조업	0.2	4.5	0.0	0.0	-42.9	0.0	0.6	31.2	
음료 제조업	0.0	-	0.0	0.0	-	0.0	0.1	24.0	
담배 제조업	0.0	-	0.0	0.0	-	0.0	0.0	13.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4	11.1	1.5	0.3	16.0	1.0	0.5	21.4	
의복의복액세서라모피제품 제조업	0.0	119.9	0.1	0.0	7.0	0.0	0.2	15.1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0.1	10.3	0.3	0.0	58.7	0.0	0.2	26.2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0.0	11.2	0.0	0.0	-	0.0	0.0	19.2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0	-22.7	0.2	0.3	-13.6	0.9	0.4	2.7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0	-32.1	0.0	0.0	10.4	0.0	0.0	16.7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2.7	5.2	0.4	5.2	22.8	1.2	6.6	10.1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9.0	6.9	0.9	18.4	14.7	0.9	29.2	10.7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1.2	-	8.4	1.6	-	9.3	0.2	14.7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	43.8	0.4	0.9	33.8	0.5	2.5	19.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	230.6	0.2	0.5	164.4	1.9	0.4	25.1	
1차 금속 제조업	7.6	0.9	1.4	14.0	3.5	3.3	6.3	2.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기구 제외)	2.7	22.2	1.8	1.9	7.6	1.5	1.8	1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30.9	84.6	0.4	1.5	33.3	0.1	23.9	14.8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4.4	73.3	1.6	7.4	81.4	3.6	3.0	25.9	
전기장비 제조업	4.2	39.3	1.2	3.3	25.2	1.9	2.5	13.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22.7	47.5	3.2	43.8	67.7	6.4	10.1	16.1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0.1	-6.9	0.0	0.1	-14.6	0.0	9.1	16.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1	-22.6	0.2	0.2	41.8	0.4	1.0	6.5	
가구 제조업	0.0	148.7	0.0	0.0	-	0.0	0.4	18.8	
기타 제품 제조업	0.0	35.0	0.1	0.0	3.6	0.0	0.4	45.3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	-	-	0.0	-	-	0.0	-	
미분류	0.0	-	-	0.0	-	0.0	0.1	-26.1	
전체	비중(또는 연평균 증가율)(%)	100.0	25.7	0.7	100.0	26.6	1.5	100.0	12.6
금액(억 달러)	13.7	-	-	9.2	-	-	625.1	-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4. 주요국의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경쟁 현황: 시장점유율 및 시장우위지수 분석

가. 주요국의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 [안후이성 수입시장] 2014년 안후이성 총수입에서 주요 5개국⁵⁾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37.2%이며,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이보다 조금 낮은 35.4%의 비중을 보임.
 - 안후이성 총수입에서 주요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6.0%에서 2014년 37.2%로 시장점유율이 소폭 상승
 - 안후이성은 대일본 수입이 크게 둔화되면서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8.4%까지 하락한 반면, 대만산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만이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
 - 대한민국 수입이 증가하면서 2014년 시장점유율 8.2%(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대만과 안후이성 수입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 5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2009년 32.5%에서 2014년 35.4%로 소폭 상승했으며, 대만과 한국의 경우 최근 5년간 대안후이성 수출 증가율이 안후이성 평균 수입 증가율(22.5%)을 상회하며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일본과 독일로부터의 내수용 수입이 안후이성 평균을 하회하면서 이들 국가의 시장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미국이 일본을 추월하며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
 - 미국과 일본이 점유율 1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들 국가를 추격하는 양상
 - 2009년과 2014년을 비교했을 때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국가는 한국(2.8%p)이었으며, 반대로 가장 큰 폭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국가는 일본(-2.4%p)이었음.
- [한국의 시장점유율] 2014년 한국은 안후이성 총수입에서 시장점유율 8.2%로 3위를 차지하였으며,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도 7.7%의 점유율로 미국과 일본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
 - 한국은 2011년 이후 안후이성 총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면서 2009년 4위에서 2014년 한 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함.
 - 주요 5개국 중 한국은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순위가 2009년 4위에서 2014년 3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1위 국가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도 6.6%p에서 1.6%p로 축소

5) 주요 5개국은 중국의 상위 5대 수입대상국인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을 가리킴.

표 9. 주요국의 안후이성 내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안후이성 총수입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2009년	100.0	6.2	2.4	12.3	7.2	7.9	100.0	4.9	1.3	11.5	8.5	6.3
2010년	100.0	7.4	3.6	19.3	7.1	5.8	100.0	6.3	3.1	21.2	7.0	5.0
2011년	100.0	5.5	4.3	13.6	7.2	6.7	100.0	3.6	1.7	13.5	7.1	6.6
2012년	100.0	6.3	5.8	9.2	8.1	6.0	100.0	4.8	3.7	7.6	8.8	5.9
2013년	100.0	7.5	5.9	8.6	7.6	5.3	100.0	6.5	6.6	8.7	9.4	4.8
2014년	100.0	8.2	8.9	8.4	7.1	4.6	100.0	7.7	3.5	9.1	9.3	5.8
연평균 증가율 (2009~14년)	10.3	26.6	40.9	10.3	17.8	13.5	22.5	26.6	40.9	10.3	17.8	13.5

자료: 중국 해관통계.

나. 가공단계별 경쟁 현황

■ [한국의 점유율] 한국은 중간재에서는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일차상품에서는 0.1%의 낮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2014년).

- 중간재에서 한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9년 14.2%에서 2014년 14.6%로 소폭 상승함.
-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일본, 미국, 독일의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한국이 중간재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 한국은 중간재 중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에서 경쟁국을 압도하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 내수용 최종재시장에서 한국은 1위 일본과 비교적 큰 폭의 시장점유율 격차(9.1%p)를 보이고 있음.

■ [가공단계별 점유율 현황] 한국은 반제품, 일본은 부품부분품과 자본재, 미국은 일차상품과 소비재, 독일은 자본재와 소비재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2014년).

- [일차상품] 미국이 주요국 대비 높은 시장점유율(10.7%)을 차지한 반면, 한국(0.1%)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미미한 시장점유율을 보임.
- [중간재] 한국과 일본 간 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국간 시장점유율 격차도 3.5%p로 근소한 격차를 보임.
 - 반제품에서는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반면, 부품·부분품에서는 일본의 점유율이 가장 높아 양국간 비교우위 품목이 뚜렷하게 구분
 - 중간재 중 반제품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4.8%로 일본(4.4%)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부품·부분품에서는 일본의 시장점유율(34.3%)이 한국(14.0%)을 크게 앞서고 있음.
 - 주요 5개국의 반제품과 부품·부분품에서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대비 2014년에 각각 5.5%p와 14.6%p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요 5개국의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됨.
- [최종재] 최종재는 자본재 수출에 강세를 보이는 일본과 독일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으나, 소비재는 미국이 강세
 - 자본재 수입시장에서 일본과 독일의 시장점유율은 20% 이상이며, 한국의 점유율도 높은 편(17.3%)
 - 소비재는 가정용 가공식품과 승용차를 중심으로 미국이 17.5%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비누·램프·주방용품 등의 반내구 소비재와 비내구 소비재에서 강세를 보이는 독일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시장점유율이 미미

표 10.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주요국의 시장점유율(기공단계별)

(단위: %)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전체	4.9	1.3	11.5	8.5	6.3	7.7	3.5	9.1	9.3	5.8
일차상품	0.3	0.0	2.4	6.6	0.0	0.1	0.3	1.0	10.7	0.2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	0.0	0.1	0.0	0.0	0.0	0.0	0.0	8.5	0.0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3	0.0	2.6	7.1	0.1	0.1	0.3	1.1	10.7	0.2
미가공 연료·윤활유	0.0	0.0	0.0	0.0	0.0	0.0	0.0	0.0	12.0	0.0
중간재	14.2	2.9	18.5	9.4	8.9	14.6	5.8	11.1	7.2	5.0
반제품	18.0	2.7	6.1	10.5	4.2	14.8	5.3	4.4	8.2	3.3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6	0.0	0.5	14.4	0.0	0.0	0.0	0.0	45.6	0.8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18.6	2.8	6.3	10	4.3	15.1	5.6	4.4	6.2	3.4
가공된 연료·윤활유	8.5	0.0	1.6	77.7	8.4	11.7	0.7	37.6	9.3	4.1
부품·부분품	5.3	3.5	48.3	6.9	20.4	14.0	7.7	34.3	3.6	10.9
자본재 부품·부분품	5.4	3.9	51.9	6.3	19.4	15.0	8.4	35.1	3.6	10.2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4.7	0.0	18.2	12.4	28.7	4.3	0.9	27.0	3.0	18.2
최종재	3.6	2.8	29.3	13.0	22.7	16.1	8.0	25.2	9.0	19.9
자본재	3.8	3.0	31.2	11.1	23.5	17.3	8.6	27.1	8.3	20.8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3.9	3.1	29.7	11.4	24.1	17.3	8.6	27.1	8.3	20.8
산업용 운송장비	0.0	0.0	87.2	0.0	0.0	2.0	1.0	1.8	11.6	14.8
소비재	0.5	0.1	3.2	39.1	11.5	0.3	0.3	1.2	17.5	8.6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0	0.0	0.0	1.2	0.1	0.0	0.0	0.0	3.1	0.0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0	0.0	0.4	77.8	0.3	0.0	0.1	0.0	33.2	2.1
승용차	4.8	0.0	95.2	0.0	0.0	0.0	0.0	0.0	12.5	0.0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	0.0	0.0	0.0	0.0	0.0	0.0	0.0	1.0	0.0
내구소비재	24.3	0.0	33.2	11.0	4.4	1.1	0.0	8.4	0.7	7.0
반내구소비재	3.0	0.9	13.7	10.1	41.0	4.4	1.1	10.7	6.5	41.5
비내구소비재	0.8	0.0	2.6	5.4	57.6	0.2	1.1	1.5	3.6	31.4
미분류	0.0	0.0	0.0	0.0	100	0.0	0.0	0.0	0.0	0.0

자료: 중국 해관통계.

■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⁶⁾ 분석 결과 한국은 중간재와 최종재 중 자본재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낸 반면, 일차상품과 소비재에서는 비교열위를 보임.

- 중간재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반제품 중에서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와 가공된 연료·윤활유, 부품·부분품 중에

6) 시장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지수는 어느 국가의 특정 수출품목이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시장점유율과 달리 경제 및 수출 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에도 경쟁력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이 지표는 Balassa의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를 변형한 것으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MCA_{jS}^i = \frac{X_{jS}^i / X_{jS}^i}{WX_{jS}^i / WX_{jS}^i} \quad (\text{단 } MCA_{jS}^i \text{ 는 } i \text{ 국 } j \text{ 상품 의 안후이성에서의 시장비교우위지수, } X_{jS}^i \text{ 는 } i \text{ 국의 대안후이성 } j \text{ 상품}$$

수출액, X_{jS}^i 는 i 국의 대안후이성 총수출액, WX_{jS}^i 는 전 세계의 대안후이성 j 상품 수출액, WX_{jS}^i 는 전 세계의 대안후이성 총수출액)

RCA와 마찬가지로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은 수입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서는 자본재 부품·부분품에서 시장비교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중간재 수출품에 대한 시장비교우위는 2009년 대비 2014년 다소 약화
- 그러나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와 자본재 부품·부분품의 경우 비교우위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최종재는 2009년 비교열위에서 2014년 비교우위로 전환된 품목으로, 특히 자본재에서 비교우위가 강하게 나타남. 그러나 소비재에서는 모두 비교열위를 보임.

■ [가공단계별 시장비교우위지수] 일본은 중간재와 최종재, 미국은 일차상품, 독일은 최종재, 대만은 중간재와 최종재에서 각각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음.

- 일차상품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모두 비교열위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은 일차상품 수출에서 2009년 대비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됨.
- 중간재의 경우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과 일본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반제품에서는 한국이, 부품·부분품에서는 일본이 가장 큰 비교우위를 보임.
- 자본재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이 비교우위를 나타냈으며, 특히 독일이 가장 우세
- 소비재에서는 미국과 독일이 비교우위를 보였는데 미국은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독일은 반내구 소비재에서 특히 강한 비교우위를 나타냄.

표 11. 주요국의 안후이성 내 시장비교우위지수(가공단계별)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일차상품	0.07	0.02	0.21	0.78	0.01	0.02	0.09	0.12	1.28	0.03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1.23	0.00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07	0.02	0.23	0.84	0.01	0.02	0.10	0.13	1.27	0.04
미가공 연료·윤활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84	0.00
중간재	2.90	2.21	1.61	1.12	1.41	1.89	1.39	1.03	0.65	0.73
반제품	3.66	2.03	0.53	1.24	0.66	1.91	1.59	0.51	0.94	0.61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11	0.00	0.05	1.71	0.00	0.00	0.00	0.00	6.96	0.18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3.79	2.11	0.55	1.19	0.68	1.95	1.66	0.51	0.70	0.62
가공된 연료·윤활유	1.72	0.00	0.14	9.18	1.33	14.44	0.20	4.25	1.03	0.73
부품·부분품	1.08	2.63	4.19	0.82	3.21	1.81	1.07	1.86	0.19	0.93
자본재 부품·부분품	1.09	2.94	4.50	0.74	3.05	1.93	1.11	1.81	0.18	0.83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0.95	0.03	1.58	1.47	4.53	0.55	0.24	2.96	0.32	3.14
최종재	0.73	2.12	2.54	1.54	3.58	2.08	2.27	2.80	0.97	3.48
자본재	0.77	2.27	2.71	1.32	3.71	2.24	2.41	2.97	0.89	3.60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0.79	2.33	2.58	1.35	3.80	2.24	2.42	2.97	0.89	3.60
산업용 운송장비	0.00	0.00	7.57	0.00	0.00	0.25	0.40	0.28	1.77	3.63
소비재	0.10	0.05	0.28	4.63	1.82	0.04	0.09	0.15	2.21	1.75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00	0.00	0.00	0.14	0.01	0.00	0.01	0.00	0.39	0.00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00	0.00	0.03	9.20	0.04	0.00	0.02	0.00	4.81	0.48
승용차	0.97	0.00	8.27	0.00	0.00	0.00	0.00	0.00	1.21	0.00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6	0.00
내구 소비재	4.95	0.00	2.88	1.30	0.69	0.15	0.00	0.56	0.04	0.73
반내구 소비재	0.62	0.69	1.19	1.20	6.47	0.57	0.31	1.14	0.68	7.02
비내구 소비재	0.16	0.00	0.23	0.64	9.09	0.02	0.35	0.18	0.43	6.04
미분류	0.00	0.00	0.00	0.00	15.77	0.00	0.00	0.00	0.00	0.00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업종별 경쟁 현황

- [한국의 점유율] 한국은 농림수산업과 광업에서 수입시장을 거의 점유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2009년에 비해 상당폭 확대
 - 제조업 수입시장 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3.7%로 일본(16.1%)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함.
 - 1위 일본과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3.1%p에서 2014년 2.4%p로 크게 축소
 - 한국은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함.
 - 2009년과 2014년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24개 제조업 세부 업종 중 10개 업종에서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10개 업종에서는 점유율이 하락함.
 -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68.1%p)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17.2%p)의 비중이 가장 크게 확대된 반면, 1차 금속 제조업(-15.6%p)과 섬유제품 제조업(-4.2%p)은 비중이 가장 크게 하락한 업종임.
- [국가별 점유율] 제조업 수입시장에서 주요 5개국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2009년 대비 3.1%p 하락
 - 5개국의 제조업 내 점유율은 59.4%에서 56.3%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국가별로는 일본(-6.7%p)의 점유율 하락이 가장 컸던 반면에, 한국(4.0%p)의 점유율이 가장 크게 확대됨.
 - 2014년 기준으로 담배 제조업을 제외한 제조업 내 23개 세부 업종 중에서 국가별 점유율 1위 업종의 수는 미국과 독일이 각각 6개, 7개로 가장 많았음.
 - 다른 국가들의 경우 한국 5개, 일본 3개, 대만 2개였는데 이는 2009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2개 업종 증가, 일본은 2개 업종 감소
 - 또한 전체 업종에서의 시장점유율 변동 현황을 보면 일본은 16개 업종에서 시장점유율이 떨어져 전체적으로 안후이성 내 시장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었으며, 반대로 한국은 5개국 중에서 가장 많은 13개 업종에서 시장점유율이 확대

표 12.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시장 내 주요국의 시장점유율(업종별)

(단위: %)

분류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전체	4.9	1.3	11.5	8.5	6.3	7.7	3.5	9.1	9.3	5.8
농림수산업	0.0	0.2	0.1	0.3	0.1	0.0	0.1	0.0	8.9	1.3
광업	0.1	0.0	0.0	5.3	0.0	0.1	0.3	0.0	7.9	0.0
금속 광업	0.0	0.0	0.0	5.4	0.0	0.0	0.3	0.0	7.9	0.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8.8	0.0	0.3	1.3	0.0	12.9	7.3	5.7	16.0	0.8

표 12. 계속

분류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제조업	9.7	2.6	22.8	11.8	12.5	13.7	6.0	16.1	10.3	10.2
식료품 제조업	0.1	0.0	0.2	20.1	0.1	0.0	0.0	0.0	42.4	0.8
음료 제조업	0.0	0.0	0.0	0.0	0.0	0.0	1.3	0.0	1.8	2.5
담배 제조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5.3	3.2	1.8	32.5	0.8	1.1	0.6	1.4	12.2	0.3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3.6	0.0	13.4	0.0	0.2	0.8	0.0	3.5	0.0	2.4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0.2	0.0	0.0	18.2	1.2	0.1	0.0	0.0	5.0	0.0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0.0	0.0	0.1	0.5	4.8	0.0	0.0	0.0	33.1	3.3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1.6	0.0	14.2	28.6	0.2	0.6	0.3	6.9	24.9	0.6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0	0.0	0.1	0.4	98.2	0.0	0.0	3.0	0.1	55.8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1.6	4.0	0.1	2.9	0.3	20.1	1.2	3.0	16.3	0.4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3.4	5.5	7.1	12.9	6.5	21.4	5.4	8.8	10.0	6.2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0	16.8	0.2	0.2	0.0	68.1	4.1	0.1	2.6	0.0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2.0	3.5	2.7	11.8	3.9	2.1	3.7	2.8	6.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4	1.7	24.0	32.4	27.9	2.5	26.9	10.6	2.2	3.8
1차 금속 제조업	31.2	0.2	20.3	3.1	0.7	15.6	4.1	3.7	1.5	0.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재가구 제외)	18.1	0.1	55.3	4.1	14.0	21.8	0.9	19.5	1.6	13.8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4.1	17.7	11.5	11.1	19.6	3.5	16.0	3.0	3.2	6.0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1.6	0.4	14.2	23.6	27.6	15.3	3.7	17.0	24.5	17.0
전기장비 제조업	6.9	1.5	43.4	2.7	28.8	10.2	2.7	14.4	4.7	16.4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9	3.5	44.4	8.0	22.3	21.1	9.1	38.7	4.7	21.4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4.8	0.0	55.0	4.8	12.1	1.7	0.3	13.4	0.3	24.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0.0	13.9	12.5	29.9	5.2	1.0	33.3	5.7	12.2
가구 제조업	0.0	76.7	5.5	5.6	0.7	2.0	11.1	1.8	2.7	29.1
기타 제품 제조업	2.3	10.8	10.3	5.8	13.8	0.6	3.1	15.4	8.0	19.6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미분류	0.0	0.0	0.0	0.0	100	0.0	0.0	0.0	0.0	0.0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 업종별 시장비교우위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제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 함께 비교우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내 23개 세부 업종 중 비교우위를 갖는 수출 업종이 2009년 6개에서 2014년 8개로 증가함.
-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이 비교우위로 전환된 반면, 섬유제품 제조업은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로 전환
- 한국의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 상위 5대 업종⁷⁾은 모두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업종별 시장비교우위지수] 제조업은 5개국 모두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업종으로, 한국·일본·독일이 비교적 강한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5개국 모두 2009년 대비 비교우위는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안후이성의 내수용 수입 상위 5대 업종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대체로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음.

7)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이 이에 해당함.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은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업종으로, 특히 일본의 비교우위가 강하게 나타남. 한국은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된 업종임.
 - 1차 금속 제조업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업종임. 한국의 비교우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일본은 비교열위로 전환된 업종임.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은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업종으로, 한국의 비교우위가 가장 크게 나타남. 2009년과 비교했을 때 독일을 제외한 3개국의 비교우위는 악화되고 있음.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은 5개국 모두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독일의 비교우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 대만은 비교열위에서 비교우위로 전환된 업종임.
 -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은 미국만 비교우위를 갖는 업종임.
- 제조업 내 24개 세부 업종 중 한국은 모두 8개 업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은 8개, 일본 8개, 미국 7개, 독일 12개 업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음.

표 13. 주요 국가의 안후이성 내 시장비교우위지수(업종별)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농림수산업	0.01	0.16	0.01	0.04	0.02	0.00	0.03	0.00	0.96	0.23
광업	0.01	0.00	0.00	0.63	0.00	0.01	0.09	0.00	0.86	0.00
금속 광업	0.00	0.00	0.00	0.64	0.00	0.00	0.08	0.00	0.85	0.0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1.79	0.00	0.02	0.15	0.00	1.67	2.05	0.63	1.73	0.15
제조업	1.97	1.97	1.98	1.89	1.98	1.77	1.71	1.77	1.11	1.76
식품 제조업	0.02	0.00	0.01	2.38	0.01	0.00	0.00	0.00	4.57	0.13
음료 제조업	0.00	0.00	0.00	0.00	0.00	0.00	0.38	0.00	0.19	0.44
담배 제조업	-	-	-	-	-	-	-	-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1.07	2.43	0.15	3.85	0.12	0.15	0.18	0.15	1.31	0.04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0.72	0.00	1.16	0.00	0.03	0.10	0.00	0.38	0.00	0.42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0.04	0.00	0.00	2.16	0.19	0.02	0.00	0.00	0.54	0.00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0.00	0.00	0.01	0.06	0.76	0.00	0.00	0.00	3.56	0.57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33	0.02	1.24	3.38	0.03	0.08	0.08	0.76	2.69	0.11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01	0.01	0.01	0.04	15.49	0.00	0.00	0.33	0.01	9.66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2.37	3.07	0.01	0.34	0.05	2.60	0.34	0.34	1.76	0.07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78	4.16	0.62	1.52	1.03	2.76	1.52	0.97	1.08	1.07
의료용·물질·의약품 제조업	0.00	12.77	0.02	0.02	0.00	8.80	1.14	0.01	0.29	0.00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33	1.50	0.30	0.32	1.86	0.50	0.60	0.40	0.31	1.1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09	1.31	2.08	3.83	4.39	0.33	7.60	1.17	0.24	0.66
1차 금속 제조업	6.37	0.16	1.76	0.37	0.12	2.01	1.15	0.41	0.16	0.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3.68	0.11	4.80	0.49	2.21	2.82	0.26	2.15	0.17	2.4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0.83	13.43	1.00	1.31	3.09	0.46	4.51	0.33	0.35	1.04
의료·정밀·광학·기계가시계 제조업	0.33	0.27	1.23	2.79	4.35	1.98	1.05	1.87	2.64	2.94
전기·장비 제조업	1.40	1.12	3.77	0.32	4.54	1.32	0.77	1.59	0.50	2.84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0.79	2.66	3.85	0.94	3.51	2.72	2.56	4.26	0.50	3.71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0.97	0.04	4.77	0.57	1.91	0.22	0.10	1.48	0.03	4.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23	0.00	1.21	1.48	4.71	0.68	0.29	3.66	0.61	2.11
가구 제조업	0.00	58.29	0.47	0.66	0.12	0.26	3.14	0.19	0.29	5.04
기타 제품 제조업	0.47	8.24	0.89	0.69	2.17	0.08	0.87	1.69	0.86	3.39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	-	-	-	-	-	-	-	-	-
미분류	0.00	0.00	0.00	0.00	15.77	-	-	-	-	-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5. 종합 및 시사점

-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 안후이성은 총수입 중 내수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70.4%)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동부 연해지역에서 수출기업이 이전해오면서 가공무역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가공단계별로 볼 때 안후이성의 내수용 수입은 총수입과 마찬가지로 일차상품 중심의 수입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그 비중이 하락하고 있으며, 반면 최종재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수용 수입에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안후이성의 내수용 수입은 산업용 원자재(67.0%)의 비중이 2/3를 차지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높은 특징을 나타냄
 - 최종재 중에서는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19.6%)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 중심의 수입구조이나 수입 비중(56.4%)이 전국 평균(80.1%)을 크게 하회한 반면, 광업의 비중(41.3%)은 전국 평균(11.2%)을 크게 상회함.
 -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는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16.1%) △ 1차 금속 제조업(7.0%)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6.6%)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3.8%) △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3.5%)이 수입 상위 5대 업종임.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은 안후이성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13.7%)이 가장 높은 업종이었으나 내수용 수입에서는 그 비중이 3.3%로 크게 낮았음.
- [한국의 수출] 한국의 대안후이성 수출 중 내수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6.8%(2014년)로 대중 전체 내수용 수출 비중(33.4%)을 크게 상회함. 주로 중간재(55.1%)와 제조업(99.6%)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음.
 - 한국의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은 가공단계로 볼 때 중간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최종재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출 비중이 44.0%까지 확대
 - 한국의 대안후이성 내수용 수출은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41.6%)와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43.9%) 두 품목에 집중
 - 업종별 수출 비중은 제조업에 99.6%가 집중되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43.8%)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18.4%) △ 1차 금속 제조업(14.0%)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7.4%)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5.2%)이 수출 상위 5대 업종임.
 - 한국의 주요 수출 업종은 안후이성의 수입 상위 5대 업종 중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치
- [수입시장 내 경쟁] 시장점유율과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을 통하여 경쟁우위 품목 또는 업종⁸⁾을 도출한 결과, 한국은 가공단계별로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에서 경쟁우위를 보였으며, 업종별로는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서 경쟁우위를 나타냄.
 - 가공단계별로 구분할 때 안후이성의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수입시장에서 대만이 한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나타남.
 - 일차상품의 경우 미국이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음.

8) 앞서의 시장점유율 분석과 시장비교우위 분석을 바탕으로 가공단계별 또는 업종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1위이면서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인 품목(또는 업종)을 한국이 경쟁우위를 갖는 품목(또는 업종)으로 분류했으며, 해당 품목(또는 업종)에서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인 국가를 수입시장 내 경쟁국가로 분류함.

- 부품·부분품 수입시장에서는 일본이 경쟁우위(경쟁국은 한국과 대만), 자본재에서는 일본이 경쟁우위(경쟁국은 한국, 대만, 독일), 소비재에서는 미국이 경쟁우위(경쟁국은 독일)를 나타냄.
 -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유한 업종에서는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는 미국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에서는 대만, 미국, 독일 △ 의약품·물질·의약품 제조업에서는 대만 △ 1차 금속 제조업에서는 대만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서는 일본, 독일이 주요 경쟁국이었음.
 - 한국의 대안후이성 수출 상위 5대 업종 중에서는 화학물질·제품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만 경쟁우위를 보유
- [시사점] 2010년 이후 동부 연해지역에서 안후이성으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진출하는 수출기업이 점차 증가하면서 안후이성의 가공무역 수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처럼 수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진출 동향, 새로운 공급체인의 형성, 생산자시장의 확대 등 현지 수출시장의 동향과 구조적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수출 확대의 기회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는 지난 2010년 안후이성 허페이(合肥), 우후(芜湖) 등의 지역을 '완장 도시벨트 산업이전 유치 시범구'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안후이성이 수출가공단지를 설립하고 가공무역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연해지역에 있던 BOE(중국 최대 LCD 패널 제조업체), 거리(格力, GREE; 가전제조업체) 등 연해지역에 있던 대형 수출기업의 진출이 증가
 - BOE 등 대형 기업이 진출하면서 그동안 안후이성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수입 비중이 크지 않던 자본재,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분야에서의 수입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최근 안후이성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서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액정디바이스 제조 등 전자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산업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기계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과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은 한국이 안후이성 수입시장에서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출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
 - 기업 진출, 공급체인, 생산자시장 등 현지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임.
- 아울러 대안후이성 수출 확대전략을 수립할 때 한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현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수출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제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품질향상 노력 등을 지속해야 할 것임.
- 한국의 대안후이성 수출은 자본재와 반제품,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에 집중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안후이성 내에서 최근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업종)과 일치
 -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기 품목과 업종에서의 수출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출제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품질향상 노력 등을 지속할 필요
 - 안후이성은 최근 반도체, 전자제품, 액정디바이스, LCD 패널 등의 분야에서 가공무역이 증가하고 있음. 이들 제품은 새로운 기술이 구현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주기가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입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출제품을 더욱 첨단화·고급화함으로써 산업수요에 부합하고 수출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

[국문자료]

- 김부용, 정지현. 2015.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中 BOE 전략마케팅 책임자 "지난해 특허출원 업계 1위"」(2015. 10. 15), 『ZDNET KOREA』,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1015112913(검색일: 2015. 10. 20).
 KOTRA. 2011. 『차이나마켓31』.

[중문자료]

- 國家統計局. 2014 『安徽省統計年鑑2014』. 中國統計出版社.
 _____. 2013 『安徽省統計年鑑2013』. 中國統計出版社.
 _____. 2012 『安徽省統計年鑑2012』. 中國統計出版社.
 _____. 2011 『安徽省統計年鑑2011』. 中國統計出版社.
 _____. 2010 『安徽省統計年鑑2010』. 中國統計出版社.
 「安徽省2014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015. http://www.ahtjj.gov.cn/tjj/web/info_view.jsp?strId=1425024117431024(검색일: 2015. 9. 10).

[웹사이트]

- 중국통계국. <http://www.stats.gov.cn>(검색일: 2015. 9. 9).
 안휘성통계국. <http://www.ahtjj.gov.cn/tjj>(검색일: 2015. 9. 9).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 <http://www.kita.net>(검색일: 2015. 8. 2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keri.koreaexim.go.kr>(검색일: 2015. 8. 25).
 BOE 홈페이지. <http://store.boe.com/store/index.html>(검색일: 2015. 10. 20).

[구입자료]

- 중국해관통계(구입일: 2015. 2, 구입처: 중국해관).